

뉴스 라운드업

- 잭슨홀 워시 발언에 9 월 금리인상 반영확률 30%대→57%로 급등, 미 2 년물 국채금리 12.6bp·10 년물 5.4bp 동반 상승
- 달러인덱스 99.68 로 강세, 금은 금리·달러 부담에 -3.23% 급락
- 뉴욕증시 초반 상승분 반납해 S&P500 -0.25%·나스닥 -0.52% 소폭 하락, 하이일드 스프레드(-4bp)·VIX(14.42)는 안정권 유지
- 일본 한달간 사상최대 965 억달러 엔화 매수 개입, 콜롬비아는 재정우려로 페소 3 년래 최대 주간 낙폭

잭슨홀 워시 매파 발언에 9 월 금리인상 기대가 되살아나며 국채금리·달러가 오르고 금이 급락했다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 기대가 크게 흔들렸다. 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흔들리면 Fed 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언급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에 따라 9 월 회의 금리인상 반영확률은 발언 전 30%대에서 한때 57%까지 급등했다. 이는 8 월 27 일 종가 기준 하우스 전망(9 월 동결 우세, 인상 39%)보다 한층 더 매파적으로 쏠린 결과다. 국채시장은 단기물 중심으로 매도가 집중돼 미국 2 년물 금리가 12.6bp 오른 4.360%로 7 월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0 년물도 5.4bp 상승한 4.730%를 나타냈다. 달러인덱스는 0.55% 올라 99.68 로 주간 기준 상승 마감했으며,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겹치며 금 가격은 3.23% 급락해 안전자산 내에서도 자산별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주식시장은 매파 발언 이후 흐름이 반전됐다. 뉴욕증시는 장중 한때 상승세를 보이다 워시 발언 이후 되돌림이 나타나며 S&P500 이 0.25%, 나스닥이 0.52% 밀린 채 마감했다. 다만 하이일드 회사채 스프레드는 4bp 좁혀진 263bp, VIX 지수도 14.42 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이번 조정이 신용시장이나 변동성 지표까지 흔드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초기 사이클·완만한 위험선호 국면이라는 기존 하우스 판단과 큰 틀에서는 부합하지만, 금리 경로가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재조정될 경우 벨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코스피(-1.79%)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워시 발언이 나오기 전인 금요일 오후 장에 이미 마감한 수치로, 매파 발언에 대한 아시아 시장의 반응은 오늘 개장 이후 확인될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독일 10 년물 금리가 15 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ECB 통화정책위원회 프리모즈 돌렌츠가 9 월 금리인상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언급한 점이 워시발 매파 분위기에 가세했다 — 이는 공급 충격에 대응한 추가 긴축에 신중해야 한다던 다른 ECB 위원(치폴로네)의 최근 기조와는 결이 달라, ECB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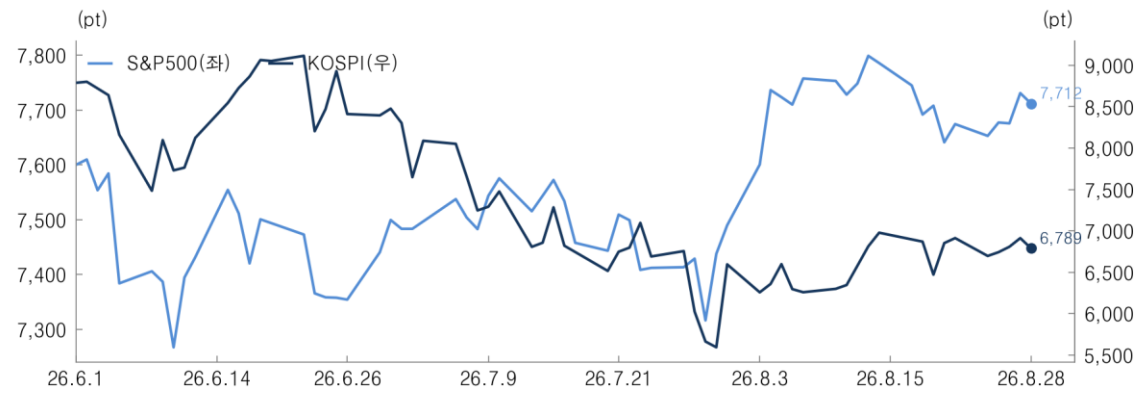
그 밖에 일본 정부가 지난 한 달(7 월 30 일~8 월 26 일)간 15.4 조엔(약 965 억달러) 규모의 엔화 매수 개입을 단행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 엔저 방어를 위한 이례적 조치였던 만큼 달러/엔 환율에 대한 당국의 경계 수위가 여전히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미에서는 콜롬비아 페소가 재정적자 우려 속에 3 년 만에 최악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으며, 신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필요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반면 캐나다는 2 분 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3.3% 성장하며 직전 분기(0.3%, 상향조정)에서 크게 반등했고, 캐나다은행(BoC)은 시장 설문조사에서 이번 주 회의를 포함해 향후 최소 1 년간 기준금리 2.25% 동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가 이란 관련 거래를 이유로 방크미스르(Banque Misr)의 UAE 지점을 달러 결제망에서 차단하자 UAE·이집트 중앙은행이 공동 대응에 나선 점도 지정학 리스크 축을 자극하는 소식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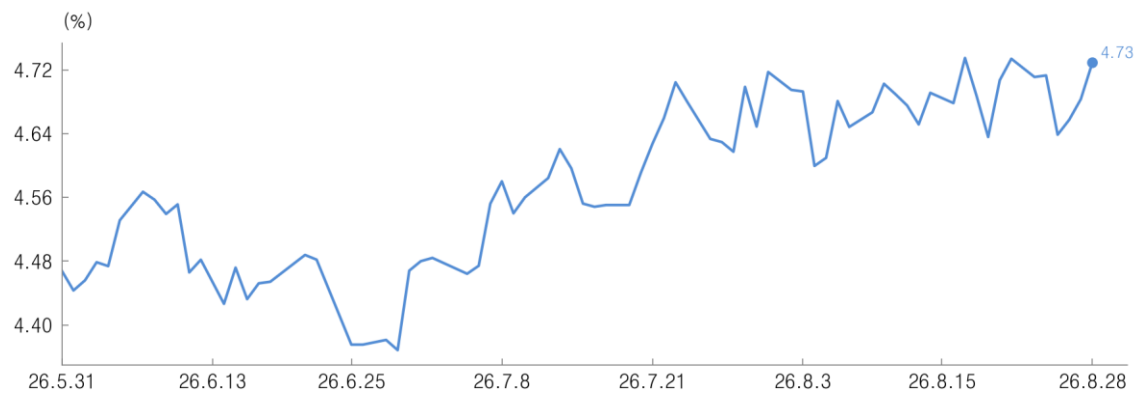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711.76	-0.25%	8/28 종가
	나스닥	26,402.42	-0.52%	8/28 종가
	STOXX 600	655.17	+0.51%	8/28 종가
	닛케이 225	66,405.34	+0.41%	8/28 종가
	CSI 300	4,609.18	-0.46%	8/28 종가
	KOSPI	6,788.88	-1.79%	8/28 종가
	항셍	25,584.79	+0.07%	8/28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9.68	+0.55%	8/28 종가
	달러/엔	160.06	-0.01%	8/31 종가
	유로/달러	1.16	-0.02%	8/31 종가
	달러/원	1,377.30	+0.12%	8/31 종가
	달러/위안	6.73	+0.09%	8/28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730%	+5.4bp	8/28 종가
	미국 2 년	4.360%	+12.6bp	8/28 종가
	일본 10 년	2.919%	+2.7bp	8/28 종가
	독일 10 년	3.291%	+2.4bp	8/28 종가
	한국 10 년	4.274%	+2.2bp	8/28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63bp	-4.0bp	8/27 종가
원자재	WTI	83.40	-0.16%	8/28 종가
	금	4,453.67	-3.23%	8/28 종가
	구리	6.66	+1.05%	8/28 종가
변동성	VIX	14.42	-0.55%	8/28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26 건 HIGH	• 연준 Warsh, 금리 인상 신호로 9 월 인상 기대 55% 급등 ↳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저하 확신 없으면 금리 인상 필요하며 긴축 입장 표시 ↳ 미국 장 마감 후 글로벌 주식 낙폭, 2 년물 미국채 수익률·달러 강세(주간 상승세) • 캐나다 2 분기 GDP 연율 3.3%, 6 개월 만의 강한 회복 ↳ 분기 기준 0.8% 상승(1 분기는 0.1%로 상향 수정), 수출 급증과 가계·기업 투자 기여, 예상치 소폭 하회 ↳ 6 월 월간 0.3%(예상 부합), 7 월은 보합 예상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2.25% 유지 방침(최소 1 년) ↳ 미-캐 무역 분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스라엘-이란 전쟁 6 개월) 주시 중 • 캐나다 달러 1.39 로 9 일 저점, 관세와 금리차 압박 ↳ 1 USD = 1.39 CAD, 주간 1% 하락 ↳ 미국의 캐나다 제품 50% 관세(\$200 억)와 연준 긴축 기대 속 금리차 확대 • 글로벌 주식 펀드 순유출로 반전, 13 주 만에 처음 ↳ 지난주 \$58.7 억 순유출(5 월 20 일 이후 처음), 미국 주식 펀드 \$223.3 억 매도 ↳ Nvidia 실적 발표와 Warsh 발언을 앞두고 경계 모드로 포지션 정리 • 발틱 건화물 지수, 주간 12.1% 상승해 3 개월 최고 ↳ 메인 지수 3186(6 월 2 일 이후 최고), 전 선종 고르게 상승 ↳ 케이프사이즈 지수 5336(+3.9%), 주간 17.2% 급등 •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출 제약 계속, 이란 전쟁 6 개월째 ↳ 세계 핵심 에너지 수송로 공급 리스크 부각, 오만-이란 협상 진행
미국 뉴스 74 건 HIGH	• 연준 워시 의장, 잭슨홀에서 매파 신호로 9 월 금리인상 확률 35% → 57% 급등 ↳ 지난 금요일 '인플레이션 신뢰가 없으면 연준이 할 일이 있다'는 발언으로 매파적 입장 명확히 함 ↳ 2 년물 국채 수익률 4.29~4.35% 도달(7 월 말 이후 최고), 달러 강세·유로 약세로 전환 ↳ 미국 주식시장(S&P 500·나스닥) 하락, 주말 중동 주식시장도 동반 하락 • 미국 재무부, 환율안정화기금으로 엔화 개입하며 무질서한 환율 변동 억제 추진 ↳ 베센트 재무장관, 28 일 외환안정화기금(ESF)의 기존 외화자산을 엔화로 교환했음을 확인 ↳ 무질서한 엔화 약세가 글로벌 포지션의 강세 청산을 유도해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 유럽 중앙은행 관계자들, 30 일 잭슨홀 간담회에서 미국의 일방적 개입·사전 통보 부족에 불만, 국제 통화 협력 규범 훼손 우려 • 이란 전쟁 6 개월째, 호르무즈 해협 실질 폐쇄로 미국 기업들 연료 운송비 폭증 ↳ 2 월 28 일 이후 6 개월째 진행, 글로벌 에너지 흐름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대부분 폐쇄 상태 지속(트럼프 대통령 당초 4~5 주 예상과 상이) ↳ UPS·FedEx 연료할증료 2021 년 이후 200% 이상 상승, 해운사 75% 폭증, 연합 태평양 철도 2 분기 연료할증료 초과액 \$91.1 백만 기록

권역	요약
	↳ 기업의 연료할증료가 실제 비용을 초과하며 부당 이익 발생 논란 • 미국, 이란 거래 혐의 이집트 은행에 달러 거래 제외 제재 단행 ↳ 미국 재무부, 30 일 Banque Misr(이집트 2 위 은행)의 모든 UAE 지점을 달러 거래에서 제외한다고 통지 ↳ 이란과의 거래 혐의에 따른 조치이며, 공개 의견 수렴 기간 30 일 이내에 발효 예정 ↳ 아랍에미리트·이집트 중앙은행 30 일 공동 성명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해 정상 영업 지속'이라 밝혔으나 구체 계획 미제시 • 베센트, G20 재정위원회 회의 앞두고 무역 불균형 축소·이란 거래 종식 촉구 ↳ 이번 주 애슈빌(노스캐롤라이나) G20 재정 회의 예정, 미국 관세에 대한 회원국 반발 무마 및 이란 경제 제재 동참 압박 ↳ 미국 채무 급증·환율·금리 시장 개입에 대한 국제적 질문 예상, G20 내 미국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 고조
유럽 뉴스 10 건 HIGH	• ECB 정책위원 Dolenc, 9 월 금리 인상 추진이 타당하다는 입장 표명 • 독일 10 년물 국채 수익률 15 년 최고 경신 — 인플레이·재정 우려 반영 ↳ 인플레이션 지속·재정 압력 우려에 따른 채권 매도 확대 ↳ 연준 의장 Warsh,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목표 이상 인플레이 지속 시 추가 조정 여지 있다'고 발언 ↳ 시장, 2027 년 말까지 유로존 예금 금리 3% 도달 가능성을 약 60%로 평가 • 유럽 주식 금요일 상승 마감, STOXX 600 주간 소폭 상승 기록 ↳ STOXX 600 지수 +0.5%(655.16 에 마감) ↳ 프랑스 CAC 40 반등(2 분기 GDP 성장을 사전 발표 +0.2% → 확정 0%로 조정) ↳ EssilorLuxottica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로 주가 상승 • BOE 총재 Bailey, 에너지 충격 2 차 효과 '현재는 완만' 평가 ↳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현재까지 2 차 효과는 완만한 수준'이라고 발언(미국-이란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배경) ↳ 노동시장 약화로 임금 협상력 제약, 인상 압력 억제 ↳ 향후 2 차 효과의 지속성은 보장 불가능하다는 입장 유지
중국 뉴스 3 건 HIGH	• 중국 정부, 주택판매 체계 개혁 추진 — 미인도 리스크 차단 위해 완공주택 판매 중심 전환 ↳ 사전판매(선분양) 모델에서 완공주택 판매로의 전환, 미인도 사태 원천 차단 ↳ 소유권 이전 조건 엄격화(개별 건물 상량 완료 필수), 지방정부의 완공 상용주택 판매 촉진 책임 부여 ↳ 부동산 위기 속 공급 지연·미인도 분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부문 안정화 조치 • 중국 상위 5 대 은행 상반기 순이익 3~5% 성장 — 여신 건전성 개선 수반 ↳ 부동산 위기 이후 수년 만에 가장 견조한 순이익 성장(3~5%) 기록 ↳ 연체율(NPL) 안정, 3 개 대형은행 순이자마진 확대로 상업은행 부문 실적 첫 분기 개선 ↳ 마진 확대의 장기 지속성에 분석가 회의론, 중소은행의 상대적 성과 부진
일본 뉴스 2 건 HIGH	• 일본, 엔화 지지 개입에 한 달간 기록적 규모 15.4 조엔 투입 ↳ 개입 기간 7 월 30 일 ~ 8 월 26 일, 달러 환산 약 965 억달러 규모

권역	요약
	7 월 30-31 일 엔화 40 년 저점 근처에서 매입 개입 시작, 미국·한국과의 공동 행동 포함 - 배경: 엔화 약세로 인한 일본 주요 수출기업 수익성 악화 우려 차단 • 미즈호은행, 철광석 무역회사 Radiant World 상대 싱가포르 소송 제기 - 현지법인 Radiant World Corporation 을 상대로 금지명령 신청(세부사항 미공개) - 다른 채권자인 무역금융사 Incomlend 도 회사 및 창립자 Pinkesh Nahar 를 상대로 별도 소송 진행
브라질 뉴스 13 건 HIGH	• 7 월 신규 일자리 58,568 개로 예상 112,000 개 미달 — 올해 월간 7 월 기준 최악 - 올해 어느 달보다 고용 창출 저조 1 월~7 월 누적 972,203 개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 • 개인 대출 연체율 6.4% 사상 최고 — 가계 부채 위기 심화 속 중앙은행 정책 시동 6 월 6.0% → 7 월 6.4%로 2011 년 3 월 이후 최고치 - 가계 부채서비스비율(담보제외) 6 월 26.6% 사상 최고, 신용카드 사용자 5,280 만명(절반 이상)이 회전신용·할부금 보유 - 중앙은행, IMF 차입상한 설정보다 먼저 대출기관 한도 제한 추진 — 다년간 신용 확대·높은 차입 비용이 배경 • 2027 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0.1% GDP 로 현행 대비 축소 - Moretti 기획예산부 장관이 Valor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언 — 법원명령지급 등 일부 지출 제외로 표면상 목표 축소 - 올해 대비 약 0.5% GDP 규모의 재정 노력 포함, 월요일(31 일) 의회에 예산안 제출 예정 • 지난 금요일 연준 인상 신호에 신흥국 통화·주가 약세 - Warsh 의장의 잭슨홀 발언으로 시장의 미국 금리 인상 베팅 강화 - Bovespa 7 일 연속 상승 후 하락 전환 전망
남미 기타 뉴스 16 건 HIGH	• 콜롬비아 재정적자 2026 년 7.2%, 2027 년 최대 9.4% GDP 로 급속 악화 —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가능성 대두 2026 년 재정적자 5.3% GDP → 7.2% GDP, 2027 년 최대 9.4% GDP 로 상향 전망되며, 정부 제출 2027 년 예산(634.9 조 페소, 약 \$2,036 억)이 기존 추정치(575.7 조 페소)를 크게 상회 - 재정규칙위원회 위원장, 현 제안 승인 시 국가 채무 비지속성 위험 및 내년 재정 상황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 경고 - 시장 반응: 페소 3 년 최악의 주간 낙폭(지난 금요일), 라틴아메리카 주가지수 -1.2%, 통화지수 -0.7% • 페루 2026~2027 년 경제성장 전망 3.4%로 상향, 광업·민간투자 견인 - 경제부 공식 전망, 이전 3.2% 추정치에서 3.4%로 상향 조정 — 광업 부문 투자 \$70 억 이상 예상, 민간투자 10.5%(2026)·6.5%(2027) 성장이 주도 - 재정적자 전망 유지: GDP 대비 1.8%(2026 년), 1.4%(2027 년) • 칠레 7 월 실업률 9.5%, 시장 예상 소폭 상회 3 개월 이동평균 기준 9.5% 기록(시장 예상 9.4%), 이전 분기(9.4%)보다 소폭 상승
EM 기타 뉴스 16 건	• 무디스, 세네갈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채무재조정 위험 구체화

권역	요약
HIGH	↳ 무디스, Caa1 에서 Caa2 로 강등(지난주 금요일), IMF 프로그램 부재로 역내 자금시장 의존도 심화 ↳ GDP 대비 약 25% 규모의 만기도래 위험·고금리·재정 압력 가중으로 채무재조정 또는 디폴트 확률 증가 평가 • 러시아 휘발유 생산 국내 수요의 70% 수준으로 급락 — 우크라이나 드론의 정유소 타격 ↳ 8 월말 현재 주요 정유소 가동 중단으로 생산량 반으로 축소, 7 월말 일시 완화됐던 지역 연료 부족이 8 월 재발 •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 중재 진행, 이란이 항해 조건 준비 — 미국-이란 강경 대립 속 에너지 차질 지속 ↳ 카타르 등 중재 외교 박차, 미국은 직접 대화 거절하고 제재로 압박 중 ↳ 이란 정부 '외교와 국방은 상보적·분리 불가능' 성명(지난주 토요일), 인플레이션 억제·국산화·달러 의존도 감축 병행 추진 ↳ QatarEnergy, 해협 폐쇄 영향으로 이탈리아 Edison 에 9 월말~11 월초 LNG 5 개 카고 납품 중단 통보 • 우크라이나, 2027 년 예정 EU 차입금 2026 년으로 앞당겨 신청 — \$27 억 적자 보전 ↳ 국방부 장관이 어제 공식 요청, 국방 계획의 투명성과 지휘부 공유 필요성도 동시 언급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미국이 제공한 모스크바 회담 정보 공개 ↳ 지난주 금요일 발언, 구체 내용 미공개, '필요한 톤의 대화'라고 평가하며 미국의 투명한 대러 소통 감사 • 말레이시아 정부, 생활비 억제 정책 발표 — RON95 휘발유 보조금 300L/월/인 복원(9 월 1 일 시행) ↳ 총리 안와르 어제 텔레비전 연설, 학교 자금·소상공인 지원금 증액도 포함 ↳ 생활비 상승 압력 속 정책 선회, '경제 성장의 국민 환원' 강조 • 폴란드, 2027 년 예산 적자 7.1% GDP 유지 — 국방비 부담과 채무 이자비용 가중 ↳ 2027 년 채무 상환비용 1,070 억 즐로티, 2026 년 대비 170 억 즐로티(약 \$4.6 억) 증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방 장비 도입 사상 최대 규모, 재정 적자 구조화 상태 지속 ↳ 폴란드는 EU 과도 적자절차(EDP) 대상국(2024 년 지정) • 체코 중앙은행, 2026 년 경제 성장률 2.2%에서 2% 안팎으로 하향 조정 ↳ 1 분기 약세에 기반, 2 분기 전년동기 성장률 1.9%로 시장 예상 하회(채고 부문 마이너스 기여) ↳ 가계 소비·투자는 견조한 상태 • 쿠바 경제 위기 심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강화와 연료 차단 직격 ↳ 2026 년 초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진입, 인구 9 백만 명이 고통받는 중
한국 뉴스 1 건	• 어제 내각 개편 — 경제부총리에 이현일, 법무·국방장관도 교체 ↳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책 경험자 이현일을 경제부총리로 임명 ↳ 법무부장관에 여당 의원 김승원, 국방부장관에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강신철 지명 ↳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 라인 주요 인사 정비
인도	• 외환보유액 기록 경신 \$7,293.3 억, 8 주 연속 증가

권역	요약
뉴스 11 건	↳ 8월 21일 기준 지난 2월의 최고기록(\$7,285억) 초과, 8주간 누적 \$630억 증가 ↳ 루피 주간 0.3% 상승, 특별 외화예금 창구 마감 전 달러 유입 급증 ↳ 6월 이후 정책 조치(할인 헤징 시설 도입 등)로 대외 자본유입 가속 • 산업생산 7월 전년동월비 6.7%, 전월비 둔화하나 시장 예상 상회 ↳ 광업 축소, 제조업·전력 성장을 함께 둔화(제조업 6월 9.5% → 7월 7.3%) ↳ 로이터 설문 예상치 6.0% 상회 ↳ 5월부터 도매가격 기준에서 생산자물가지수(PPI) 기준으로 측정 방식 변경 • Jio Platforms IPO 규제당국 승인, 약 \$38억 규모 인도 최대 상장 추진 ↳ Mukesh Ambani 소유의 Reliance Jio는 중국 이동통신에 이어 세계 2위 규모 단일국가 이동통신사(3월 말 5.244억 가입자) ↳ 최근 수 주간 IPO 수요 강세, 인도 주요 시장 회복 추세 지속 • 10년물 채권 수익률 2개월 고점으로 상승, 금리 인상 베팅 확산 ↳ RBI 8월 회의 의사록 매파적 톤,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짐 ↳ 연준(Fed) 의장 Kevin Warsh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글로벌 정책 신호 해석에 주목 • 은행 대출 전년동기비 18.3% 급증, 8월 15일까지 2주간 ↳ 자본유입 확대에 따른 신용 공급 가속화
베트남 뉴스 1 건	• 중국의 파라셀군도 신규 시설 설치에 베트남 강력 반발, 즉시 중단 요구 ↳ 지난주 화요일 위성영상 분석으로 야공섬(베트남명: 바바섬)의 신규 시설 적발, 안보 전문가들은 조기경보 레이더 시설 구축 시작 단계로 추정 ↳ 베트남은 파라셀군도의 모든 외국 활동에 강력히 반대하며 공식 항의를 제기하고 즉시 중단을 요구
프론티어 뉴스 6 건	• 아이슬란드, 국민투표로 EU 가입협상 개시 거부 ↳ 어제(8월 30일) 국민투표에서 정부의 EU 가입협상 개시 제안 거부(유효표 거의 모두 개표 완료) ↳ 투표 전 여론조사(8월 29일)에서 반대 측 좁은 우위 기록, 주요 쟁점은 어업·생활비·안보(NATO 연계) ↳ 향후 EU 가입 추진을 위한 추가 협상·2차 국민투표 필수 • 나이지리아,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 지난 금요일(8월 28일) 무디스가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 대외 외환 포지션 개선·예상 상회 경제성장이 주요 근거, 정부 재정수입 증가 지속 가능성 시사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